

Cover Story

국내 유일 미국식 로스쿨, 한동 로스쿨 국제변호사 배출 산실 우뚝

졸업생 65%, 미 변호사시험 합격
국내외 로펌, 기업체 등 대거 진출

지난 5월 초, 포항에 있는 한동대에서 올 2월 실시된 미 변호사시험에 33명이 합격했다는 보도자료를 보내왔다. 워싱턴 D.C. 시험에 21명, 앨라배마주 변호사시험에 12명이 합격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응시자격이 주어진 워싱턴 D.C. 시험에 30명이 응시해 21명이 합격, 70%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합격률 70%는 미 변호사협회(ABA) 인가 미국 로스쿨들의 합격률과 거의 맞먹는 성적으로, ABA 인가 중 하위권 로스쿨 중엔 합격률이 70%에 못 미치는 학교도 많이 있다고 한다. 이번에 워싱턴 D.C. 시험을 치른 전체 응시생의 평균 합격률은 46%였다.

10년 전문 열어

국내 유일의 미국식 로스쿨인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 HILS)이 개원 10년을 넘기며 국내외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까지 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졸업생은 전체 졸업생 285명의 65%인 186

명. 이 중 8명은 두 곳 이상의 주 변호사시험에 복수합격했다.

또 졸업생 중 일부는 인도, 뉴질랜드, 호주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등 한동 로스쿨이 한국에서 교육시켜 국제변호사를 배출하는 명문 로스쿨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리걸타임즈가 포항 현지를 직접 찾아 한동 로스쿨을 취재했다. 동

대구역까지 KTX로 이동한 후 동대구역에서 포항 흥해읍의 캠퍼스까지는 택시를 이용, 서울역을 출발한 지 3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미 로스쿨과 똑같은 3년 기간의 J.D.(Juris Doctor)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오히려 졸업할 때까지 3년간 최소 105학점을 이수



국내 유일의 미국식 로스쿨인 한동 로스쿨이 수많은 미국변호사를 배출하며 명문 로스쿨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지난 4월 6일 한동대 모의법정에서 열린 '아시아에서의 종교의 자유'에 관한 학술대회 모습.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이공현 대표변호사가 기조연설을 하였고, 전북대 로스쿨의 송기춘 교수, 인하대 정상우 교수, 한동대 로스쿨의 이국운 교수, 원재천 교수 등이 발표했다.

해야 해 이수학점만 따지면 미국에 있는 로스쿨들보다도 10~15학점 더 많다. 그만큼 공부를 많이 시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5학점 따라 졸업

한동 로스쿨의 엔로우(Eric G. Enlow) 원장은 “미국법에 추가해 국제법과 국제통상 등에 관한 과목을 더 가르치기 때문에 미국의 로스쿨들보다 이수해야 할 학점이 더 많다”고 설명하고, “특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한국 학생들이 졸업 후 미국변호사, 국제변호사로 활동하는 데 손색이 없도록 법작문(Legal Writing), 변호사 실무 등에 중점을 두어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 로스쿨에선 법작문이 2년 과정의 필수 과목으

로 편성되어 있다. 4학기에 걸쳐 모두 12학점을 따라 하며, 이후에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한 심화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법작문 12학점 따라

미국변호사 자격시험에서 요구되는 채권법(Property), 불법행위법



“미국법에 더해 국제통상 등 가르쳐 미 로스쿨들보다 이수학점 더 많아”

(Torts), 계약법(Contracts), 헌법(Constitutional Law) 등 미국의 실체법(substantive law)과 증거법(Evidence), 형법 및 형사소송법(Criminal Law and Procedure), 민사소송법(Civil Procedure), 배상법(Remedies) 등이 한동 로스쿨에서 3년간 이수해야 할 주요 교과 내용이다. 또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에 관련된 국제거래법(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국제공법(International Public Law), 인권(Human Rights), 국제무역(International Trade), 국제환경규범(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 등을 공부하고, 영미법과 한국법의 차이를 비교법(comparative law)적 관점에서 다루는 등 미국법을 넘어 국제법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를 시키고 있다.

실무과목으로는 고객상담(Client Counseling), 중재(Mediation), 협상

(Negotiations), 계약서 작성(Contract Drafting), 법정변론(Trial and Appellate Advocacy) 등이 개설돼 있다. 여기에다 법철학(Jurisprudence), 법의 역사(Legal History), 기독교와 법(Christianity and Law), 도덕성과 법(Morality and Law) 등의 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법에 대한 가치관과 법철학을 정립해 가도록 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법과목이 짜임새 있게 짜여져 있는 게 한동 로스쿨 커리큘럼의 특징.

지재권 등 선택과목 운영

대부분의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운영되나 학생들이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부 선택과목도 개설되어 있다.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Information Technology), 국제비즈니스(International Business), 인권(Human Rights)에



Cover Story



한동대 로스쿨의 웅장한 모습

영어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입학 이전에 영어 강좌를 개설해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고 있다.

8년째 졸업생 배출

학생들은 또 학교 측의 주선 아래 국내외 로펌과 법원, 검찰청, 정부기관 등에 마련된 인턴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감각

을 높이고 있다.

말하자면 미국 로스쿨의 학생들과 똑같이 이론과 실무를 포함해 미국법, 국제법을 공부하는 셈인데,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미국식 로스쿨인 한동 로스쿨이 8년째 졸업생을 배출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동 로스쿨에 따르면, 학부과정을 마쳐야 입학할 수 있는 HLS엔 서울대, 연대, 고대 등 이른바

“ 불법행위법, 계약법, 배상법 등 이수해야 고객상담, 계약서 작성, 협상도 과목 개설 ”

관련된 분야가 대표적인 경우로, 한동 로스쿨에선 이들 분야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또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1, 2학년 여름학기를 통해 해외에서 초빙된 석학 및 법률 전문가들의 특강을 제공하고 있다. 여름학기는 약 1달간 진행되며, 그동안 제조물책임법(Products Liability), 국제환경법(Int'l Environmental Law), 이슬람법(Islamic Law), 국제난민 및 보호소법과 실습(International Asylum Refugee Law and Practice), 분쟁 해결 및 조정 훈련(Dispute Resolution : Mediation Training), 갱생 및 재활 중심의 형

법 개선(Restorative Justice-Models for Criminal Law and Punishment) 등의 강좌가 개설돼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1달간 여름학기 진행

물론 수업은 전 과목 모두 영어로 진행된다. 입학 전형절차에서도 로스쿨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실질적인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테스트하며,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들 중

한동 로스쿨 졸업생 미 변호사시험 합격 현황

주	인원(명)
Alabama	50
Tennessee	89
Washington D.C.	25
Missouri	10
New York	11+(4)
Virginia	1+(1)
California	(3)
계	186(194)

* 괄호 안의 숫자는 기존의 특정 주에서 합격후 또 다시 응시해 합격한 복수 합격자임.

엔로우 원장이 주문하는 바람직한 법률가상 “열정과 사랑으로 헌신하는 변호사 되라” 학생들 서로 도와 가며 소크라테스식 강의 극복

영화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The Paper Chase)”엔 소크라테스식(Socratic Method) 강의로 유명한 하버드 로스쿨 학생들 사이의 숨막힐듯한 경쟁과 치열하게 공부하는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같은 미국식 로스쿨인 한동 로스쿨에서도 소크라테스식 문답식 강의로 학생들을 미국법의 세계로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영화에 나오는 로스쿨 학생들의 모습과는 달리 학생들이 서로 도와가며 미국법, 국제법의 내용을 정복해 가는 게 한동 로스쿨의 다른 점이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똑같지만, 학생들은 서로 도와가며 과정을 마스터하고 있다.

공동체 문화 유명

엔로우(Enlow) 원장은 한동의 독특한 공동체(communitiy) 문화를 강조했다.

“가족같은 분위기라고 할까요, 서로 희생하고 돕는 오래된 전통이 있어요.”

그는 이어 “경쟁은 물론 좋은 것이지만, 한동엔 경쟁 이상의 것이 있다”며, “예컨대 기말고사를 앞두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상대로 일종의 리뷰를 해주는 등 다른 로스쿨에선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한동의 공동체 문화가 미 변호사시험 높은 합격률의 비결 중 하나”라고 말했다.

동료 학생이 리뷰 강의

실제로 기자가 한동 로스쿨을 방문했을 때도 강의가 없는 강의실에 학생들이 모여 앉아 동료 학생의 강의를 귀담아 듣고 있었다. 한동 로스쿨 관계자는 “모든 법률과목을 영어로, 소크라테스식 강의로 진행하다 보니 그 중엔 제대로 다 알아듣지 못하는 학생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런 경우 수업을 잘 소화한 학생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상대로 우리말 또는 영어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일종의 리뷰 세션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했다. 물론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도 매우 긴밀한 유대가 형성되어 있다. 한동 로스쿨은 ‘열린 문 정책(Open Door Policy)’으로 알려진 교수들의 개방적인 자세와 담임제의 운영으로 유명하다. 엔로우 원장은 “교수들 사이에 정

말 사랑으로 돌보고 가르치는 끈끈한 정이 형성되어 있다”며, “교수들 대부분이 정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수한 국제법률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로펌 근무 등 미국에서의 현업을 포기한 채 한동 로스쿨로 왔다”고 소개했

다. 또 여기에 기독교라는 신앙의 힘이 더해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 한동 로스쿨의 전임교수 12명은 모두 기독교도이며, 미국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다.

전임교수 12명 모두 미 변호사

한동 로스쿨의 이런 전통은 한동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법률가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섬기는 자세와 지도자적 품성을 갖춘 법률가의 양성이 한동 로스쿨이 지향하는 법조 인재상이다.

“한동 로스쿨 졸업 후 로펌에서 일하든 기업체 변호사로 일하든 NGO에서 인권활동에 종사하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엔로우 원장은 “변호사란 직업 자체가 굉장히 특별하고, 신뢰를 받는 중요한 자리”라며, 정의에의 헌신을 주문했다. 이어 “명예와 부만 쫓는 것이 아니라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더 헌신하는 변호사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다”며,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가로서의 이같은 사명의 수행”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09년 12월부터 한동대 로스쿨을 이끌고 있는 엔로우 원장

Cover Story

“전 과목 수업 영어로 진행 영어 구사능력 중점 테스트”

스카이(SKY)대학 출신은 물론 미국의 스탠퍼드, 다트머스, 코넬대, 캐나다의 퀸즈대, 일본의 와세다대 등 세계 주요 대학에서 공부한 인재들이 미국법, 국제법을 공부하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

전공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범학은 물론 경제학, 생물학, 디자인, 전기공학, 언론정보학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국제적인 법률가를 지향하며 지원하고 있다.

한 학기 등록금 890만원

한동 로스쿨 관계자는 “학비가

미국의 로스쿨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데다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이점 등이 겹쳐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동 로스쿨은 한 학기 등록금이 890만원으로, 미국 로스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 전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데다 입학전형절차에서도 영어 구사능력이 중요해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로 유학을 떠났다가 학부를 마치고 다시 한동 로스쿨을 지원하는 일종의 역유학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한국바이애슬론연맹 국제이사를 거쳐 한동 로스쿨의 대외협력실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박수연 미국 변호사가 그런 경우로, 그녀는 캐나다에서 중, 고교를 마치고 한동대에 입학,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후 다시 한동 로스쿨에 진학해 앨라배마주 변호사가 되었다.

미시간대 나와 한동행

또 법무법인 율촌에서 해외투자 등에 자문하고 있는 김인 변호사는 한국에서 고교를 마친 후 SAT를 보고 곧바로 미국으로 유학, 미시간대를 나온 경제학도 출신. 2005년 미시간대를 졸업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한동 로스쿨을 마치고 앨라배마주 변호사가 되었다.

김 변호사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며 부모님에게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을 드렸는데, 상대적으로 학비가 저렴한 한동 로스쿨을

엔로우 한동 로스쿨 원장은 누구...

미 로펌 근무 포기하고 한동 찾은 친한파 지적재산권, 불법행위법 등 강의

마음씨 좋은 미국인 아저씨를 연상시키는 엔로우(Eric G. Enlow) 원장은 국제 지적재산권 분야가 전문인 미국의 유명 로펌 변호사 출신이다. 예일대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세인트루이스의 워싱턴대 로스쿨을 나와 로펌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4년 3월 한동 로스쿨 교수로 부임했다. 한국에 대해 알게 된 것도 미 로펌에서 미 회사를 대리해 한국 기업을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수행하면서부터라고 한다.



연수원 영미법 외래교수 역임

로스쿨 시절 하버드 로스쿨과 워싱턴대 로스쿨의 법률저널 편집위원으로 활약했으며, 졸업 후 미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의 로클럭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2009년 12월부터 원장을 맡아 한동 로스쿨을 이끌고 있는 그는 기독교와 법(Christian and Law), 국제지적재산권(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특허법(Patents), 국제사법(Private International Law), 불법행위법(Torts) 등을 가르친다. 또 여러 차례 사법연수원의 영미법 외래교수로 위촉돼 사법연수생들을 상대로 영미법을 강의했다. 1남 3녀 중 막내딸은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좋아하는 친한파이기도 하다.

알게 되어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A.T. Kearney 금융그룹에서 컨설턴트로 활약한 경력도 있다.

크리스천 로스쿨의 특성상 기독교 법학도가 많은 것도 한동 로스쿨의 특징 중 하나로 꼽힌다.

기독교도여야 한동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 중엔 기독교 법학도들이 적지 않다. 졸업 후 공익법 센터 등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적지 않은 것도 한동 로스쿨의 이런 전통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한동 로스쿨에서도 학생들에게 인권 등 NGO(비정부기구) 활동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NGO활동 많이 강조

2002년 문을 열어 2005년부터 변호사를 배출하기 시작한 한동 로스쿨의 한 학년 정원은 50명.

이들 외에 중국과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몽골 등 개발도상국가에서 온 5명 안팎의 국제학생들이 매년 특별절차로 입학해 한국 학생들과 함께 미국법을 공부한다.

한동 로스쿨 관계자는 “이들 중엔 그 나라에서 이미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후 국제법 등을 더 공부하기 위해 입학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여러 나라의 법학도들이 함께 교류하며 국제 법무를 익힐 수 있는 것 또한 한동 로스쿨의 매력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동 로스쿨은 10년 전 역량 있는 국제법률 전문가를 양성한다



지난 3월 홍콩에서 열린 비스 국제상사중재 모의재판 대회에서 아시아 최고상을 수상한 한동대 로스쿨의 박규영(오른쪽 끝), 최지훈씨가 탈봇 교수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동 로스쿨팀 국제대회 연이어 제패 비스 국제상사중재 모의재판 아시아 최고상 2008년 국제협상대회 영국팀 물리치고 우승

한동 로스쿨 학생들의 우수성은 여러 국제대회 입상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입증되고 있다.

3학년생인 박규영(25 · 여), 최지훈(27)씨로 구성된 한동 로스쿨팀은 지난 3월 20일부터 5일간 홍콩에서 열린 비스 국제상사중재 모의재판대회(Willem C. Vis East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oot Competition)에서 아시아 국가의 최우수팀에게 주어지는 Pan Asian Award를 받았다. 아시아 부문 최종결선에 오른 인도 서벵갈 법률대학과 필리핀대, 서울대 로스쿨팀을 누르고 최종 우승한 것이다.

구두변론, 서면변론도 우수상 받아

특히 박규영씨는 영어 변론 능력이 가장 우수한 참가자에게 수여되는 변론 부문(Oral Advocate)에서 영어가 모국어인 수백 명의 영미권 로스쿨 출신 학생들을 제치고 우수 구두변론상(Second Runner-up Best Oral Advocate)을 수상했으며, 한동대 팀은 법률문서 작성능력을 평가하는 서면 변론 부문에서도 우수상(Honorable Mention for Best Claimant's Memorandum)을 탔다. 이 대회 출전을 지도한 패트릭 탈봇(Patrick M. Talbot) 교수는 “한국 법학도들의 뛰어난 기량을 세계무대에 알린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특히 법률시장 개방에 따라 국제중재 분야의 법률전문가 육성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에서 한동대팀이 아시아 최고 성적을 거둬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한동대팀은 또 이에 앞서 2008년 7월 런던에서 개최된 제10회 국제협상대회(International Negotiation Competition)에서 직전 해 우승국인 영국팀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다. 대회 참가자는 지금은 모두 미국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변신영, 박수연씨. 국제협상대회는 제섭(Jessup), 비스 국제중재 모의재판대회와 함께 전 세계 법대생들이 겨루는 세계 3대 모의재판대회의 하나로, 아시아에서 우승팀이 나오기는 당시가 처음이었다.

Cover Story

는 목표 아래 출범했다. 이후 국내 법조계에서도 전국에 25개 로스쿨이 문을 열어 변호사를 배출하는 등 법조인력 양성제도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미국변호사를 길러내는 유일한 미국식 로스쿨이라는 점에서 한동 로스쿨은 매우 독특한 로스쿨이라고 할 수 있다.

유일한 미국식 로스쿨

“2002년 로스쿨을 처음 시작할 때의 비전이 국경을 넘어, 국경 없이 활약하는 국제적인 변호사(lawyers without borders)를 양성 하자는 것이었어요.”

엔로우 원장은 “FTA가 잇따라 체결되는 등 세계가 한층 가까워지고 있어 10년 전에 생각한 방향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동 로스쿨의 졸업생들이 활약할 무대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고무적으로 전망했다.

그의 얘기대로 한동 로스쿨의 졸업생들이 국내외 로펌과 기업체, 정부기관, NGO 등으로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이 늘어나는 등 세계 경제가 갈수록 국제화되고 있어 한동 출신처럼 국제적인 역량을 갖춘 변호사들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동 로스쿨의 시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대단한 성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L**

포항=김덕성·이은재 기자



4만권이 넘는 영미법서를 소장하고 있는 한동대 로스쿨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공부에 여념이 없다.

한동대 로스쿨 2012. 1학기 개설강좌

1학년 (1L)	Property
	Contracts
	Legal Research and Writing
	Torts
	Christianity and Law
	Christianity and Law Issues Discussion
	Evidence
2학년 (2L)	Public International Law
	Advanced Legal Writing and Research
	Agency
	Trial Advocacy
	Seminar on Judicial Sociology
	Law and Society
	Law,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Assistant
	Christianity and Law
	Christianity and Law Issues Discussion
3학년 (3L)	Commercial Transactions
	Law to Protect Religious Liberties
	Family Law
	Contemporary Issues in International Law
	Contract Drafting
	Advanced Torts
	Advanced Constitutional Law
	Christianity and Law
	Christianity and Law Issues Discussion



한동 로스쿨을 나와 국내외 로펌, 기업체, NGO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동의 졸업생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수연, 노지준, 김요한, 김인, 변신영, 이서영, 정신영, 정민정, 전성우, 김민욱 변호사.

인기 높은 한동 로스쿨 출신들

“한국 로스쿨 있어도 한동 로스쿨 선택했을 것”

로펌, 기업체, 공익법 센터 등에서 맹활약

한동 로스쿨 출신에 대한 높은 평가가 이어지면서 한동 로스쿨 졸업생들이 국내외 로펌, 기업체 법무팀, 정부기관, NGO(비정부기구) 등으로 다양하

게 진출하고 있다. 특히 로펌이나 기업체에 따라서는 한동 로스쿨 출신을 연이어 채용하는 등 한동 로스쿨 출신이 기업체 등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하노이 사무소장을 역임한 전성우 변호사. 그는 서강대 영어영문과를 졸업하고 곧바로 한동 로스쿨에 진학해 미국변호사가 된 케이스다.

Cover Story



한동대 로스쿨의 수업 풍경. 한동 로스쿨은 매년 약간 명을 개발도상국가의 학생 중에서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 등록금, 거주비 절약, 생활 편리 한동 유리한 점 하나 둘 아니야 ”

2006년 테네시주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하노이 사무소장 역임

삼성전자 법무팀에서 인턴변호사로 잠시 근무하기도 한 그는 미 공인회계사 자격도 갖추고 있으며, 2006년부터 로고스의 해외사업팀에서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 등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그는 골프장 인수, 부동산 개발 등과 관련된 일을 많이 자문했다고 소개했다.

전 변호사는 “미국 로스쿨에 비해 등록금과 거주비용 등을 절약

할 수 있고, 생활하는 데도 편리해 한동 로스쿨을 지원했다”며, “유리한 점이 하나 둘이 아니다”고 모교인 한동 로스쿨을 자랑했다.

해상·보험팀에서 활약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정민정 변호사. 그녀도 2008년 12월 한동 로스쿨을 졸업하고, 이듬해 테네시주 변호사시험에 합격, 2009년 9월부터 지평지성의 해상·보험팀에서 활약하고 있다. 한국외대를 마치고 KBS에서 영어 리서처로 일하다가 한동 로스쿨에 진학했다는 그녀는 “원래 미국 로스쿨 진학을 생각했는데, 한국에 있는

한동 로스쿨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평지성에서 유창한 영어 실력을 앞세워 선주상호보험조합인 P&I 클럽 등 외국 클라이언트에 자문하고, 해상분야의 인기 있는 분쟁 해결절차인 런던 중재 관련 일을 많이 처리한다.

캐나다 퀸즈대 나와

전성우 변호사와 정민정 변호사가 한국에서 대학을 나와 곧바로 한동 로스쿨로 방향을 잡은 국내파라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부연구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서영 변호사는 캐나다의 퀸즈대를 나온 국제파라고 할 수 있다. 재일교포인 그녀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중학교때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의 국제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퀸즈대로 유학, 생물학을 전공했다.

특히 정책적인 면이 많이 등장하는 생태학을 공부하며 로스쿨 진학을 꿈꾼 그녀는 외국인 케이스로 일본의 로스쿨에 원서를 제출했으나, 재일교포는 일본인 케이스로 원서를 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되자 다시 현해탄을 건너 한동 로스쿨에 입학했다.

2010년 12월 한동 로스쿨을 졸업하고 지난해 7월 앨라배마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 변호사는 올 1월 1일부터 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유창한 영어와 일본어 실력을 살려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

외 인사와 접촉하는 일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한동대 거쳐 한동 로스쿨 진학

대성그룹 법무팀을 거쳐 얼마 전 아모레퍼시픽 법무팀으로 옮긴 김요한 변호사도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그곳에서 고교를 마쳤으나, 한동대로 다시 돌아와 국제법과 경영학을 전공하고, 한동 로스쿨로 진학한 경우. 2007년 말 졸업한 김 변호사는 이듬해 미주리주 변호사시험에 합격, 법무법인 한결과 합쳐 한결한울이 된 법무법인 한울에서 변호사생활을 시작했다. 로펌 근무를 거쳐 기업체 변호사가 된 셈이다.

또 대한상사중재원(Kcab)에서 국제자문관으로 활약하고 있는 변신영 변호사는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 홍콩에 있는 영국계 고등학교를 마치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한 후 한동 로스쿨에 진학해 미국변호사가 되었다.

박수연 변호사와 함께 로스쿨 시절인 2008년 7월 런던에서 열린 국제협상대회에 나가 2007년 우승국인 영국팀을 누르고 1등을 차지하기도 한 변 변호사는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옮기기 전 법무법인 세종의 국제중재팀에서 경험을 쌓았다.

세종 국제중재팀 근무

KCC 법무팀에서 활약하는 성지연 변호사는 2008년 2월 미주리주

“전성우, 정민정, 노지준은 국내파 이서영, 김요한은 역유학 케이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일찌감치 기업체 변호사로 출발했다. 그 해 8월 태양광 관련 제품을 만드는 한독합작투자회사인 솔라월드코리아에 입사해 법무팀에서 활약하다가 2010년 12월 KCC로 옮겨 해외투자, 라이선싱, M&A 관련 업무 등을 챙기고 있다.

KCC의 경우 법무팀에 포진하고 있는 변호사 3명이 모두 한동 로스쿨 출신일 만큼 한동대 출신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성 변호사는 세종대에서 호텔경영학을 전공한 후 2005년 3월 한동 로스쿨에 입학했다.

특허 발굴, 매입 등 업무 수행

특허법인 리앤목의 노지준 변호사는 대학 때의 전공을 살려 지적재산권 쪽으로 전문화한 케이스다.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나온 그는 법률가로서 지적권 분야의 일을 해 보고 싶어 한동 로스쿨에 진학했다고 말했다.

2006년 테네시주 변호사가 된 그는 그 해 7월부터 리앤목에 합류, 특허출원과 대응, 국제지적재산권 관련 업무 등을 폭넓게 수행하고 있다. 2010년 8월엔 지식경제부가 설립한 지식전문회사인

Intellectual Discovery로 옮겨 얼마 전까지 한국 기업을 공격하는 특허괴물에 대항해 좋은 특허의 발굴과 매입, 라이선싱 업무 등을 수행하기도 했다.

노 변호사는 “2003년 입학 당시 장인, 장모님을 통해 한동 로스쿨에 대해 알게 되어 지원했다”고 소개하고, “당시 한국엔 로스쿨이 없었지만, 지금처럼 한국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여러 개의 로스쿨이 생겼더라도 한동 로스쿨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와 함께 리앤목 특허법인에서 근무하는 백현수 변호사도 한동 로스쿨 출신이다.

한동 로스쿨 출신 중엔 또 NGO 등 공익법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2011년 1월 문을 연 공익법센터 어필(APIL)의 상근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정신영 변호사가 대표적인 경우.

어필이란 공익법 변호사(Advocates for Public Interests Law)란 의미다. 그녀는 서강대 컴퓨터학과를 나와 삼성전자에서 2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하기도 했으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더 큰 삶의 보람을 찾아 한동 로스쿨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어필의 변호

Cover Story

사가 된 지금 비록 삼성전자 시절보다 보수는 훨씬 적지만, “일이 재미있다”고 만족스러워했다.

이 외에도 미국 로펌인 클리어리 고틀립(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홍콩사무소의 황은상 변호사와 뉴욕 PwC(Pricewaterhouse Coopers)의 임예나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의 조원희 변호사 등이 모두 한동 출신으로, 한동의 이름이 알려지며 국내외 로펌 등에서 활약하는 한동 출신 변호사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LL.M. 거쳐 뉴욕주 변호사

황은상 변호사는 스탠퍼드대에 서 국제관계론을 전공한 후 2005년 한동 로스쿨에 입학했으며, 한동 로스쿨에 이어 조지타운 로센터에서 LL.M.을 한 후 뉴욕주 변호사가 되었다. 조만간 개설될 클리어리의 서울사무소 멤버 중 한 명으로 내정돼 서울로 옮길 예정이다.

조 변호사도 한동 로스쿨 졸업 후 듀크대 LL.M.을 거쳐 뉴욕주 변호사가 되었다. 토론토대에서의 학부 전공은 경제학과 전산학.

한동 로스쿨 초기엔 황, 조 변호사처럼 한동 로스쿨을 졸업한 후 미국의 로스쿨에 다시 입학해 LL.M. 과정을 이수한 후 뉴욕주 변호사가 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임예나 변호사는 또 서울대를 나와 은행에 근무하다가 한동 로스쿨에 입학했다. ■

포항=김덕성·이은재 기자

워싱턴 D.C. 변시 합격한 김민옥씨

“마음만 먹으면 한동 로스쿨에서 얼마든지 미국법 공부할 수 있어” 바브리 강좌 온라인 수강하며 시험 준비

“미국에 있는 로스쿨에 비해 학비도 저렴한데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생활하며 미국법을 공부할 수 있어 좋았어요.”

지난해 말 한동 로스쿨을 졸업하고 얼마 전 워싱턴 D.C.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돌아 온 김민옥씨는 한동 로스쿨의 장점을 이렇게 얘기했다. 한마디로 한동 로스쿨과 같은 좋은 학교가 한국에 있는데, 외화를 써 가며 미국에 가서 법률학교를 다닐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미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바브리 강좌도 온라인으로 수강했다”고 소개하고, “마음만 먹으면 한동 로스쿨에서 미국법, 국제법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법조인(Christian lawyer)을 지향한다면 크리스천 로스쿨인 한동 로스쿨이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의견. 꼭 기독교 신자여야 한동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는 아니지만, 한동 로스쿨에선 변호사로서의 섬김과 봉사의 자세 등을 많이 강조한다.



와세다대서 국제학 공부

어려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중, 고교를 미국에서 나온 그녀는 일본 와세다대에 들어가 국제학을 공부했다. 이때 법학 과목 수업을 듣고 흥미를 느껴 와세다대 졸업 후 한동 로스쿨을 지원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부모님이 한국 근처로 와서 공부하길 바라셨다”며, “꼭 변호사가 되고 싶었다기보다 전문성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한동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영어와 일본어에 능통한 김 변호사였지만 첫해엔 매일 매일 해내야 할 로스쿨 공부가 워낙 많아 많이 울었다고 한다. 그러나 교수들이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동료 학생들과의 유대를 통해 3년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미 변호사가 되었다.

그녀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파산법과 국제법. 영어, 일어는 물론 불어도 할 줄 아는 김 변호사는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